

47호, 2004, 04

01 여는 그림

02 (책을 열며) "풍풍이나 사다 달라면 모를까" - 임종철

03 (시론)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에 대한 평가 - 이철기

04 (세계평화운동동향) 해외 미군기지과 군사 식민주의 - 조셉 거슨

05 (번역글) '아메리카'의 위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06 용산투쟁 제안과 결의

07 총회를 다녀와서

08 (회원탐방)

09 (분회탐방)

10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보고

11 (회원글) 평통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 김종일

12 (평화카페) 분단의 상처, 실미도 - 황윤미

13 (건강) 건강한 삶 - 임승계

14 (미술) 설치작가 불탕스키 - 최영주

15 사진으로 보는 이달의 행사

16 (자료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2004년 한반도 정세 전망

◆책을 열며◆

퐁퐁이나 사다 달라면 모를까

평통사 공동대표 임 중 철

세계의 미군을 재편성한다. 미국의 계획이다. 미국이 필요해서 자기들 마음껏 해쳐모여 할 참이다. 유럽에선 새로운 벨트를 만들고, 아시아에선 당장 골치 아픈 북한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강자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을 현실화 해나가고 있다.

20세기 세계의 강자에서 5대 강국으로, 냉전체제 양대 강국으로, 다시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 그 미국의 지배 아래 놓인 나라들치고 편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에게 지배받는 나라들의 사정은 알 바 아니다. 오로지 영국이 1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구가한 것을 본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100년으로 끝난 영국의 몰락을 교훈 삼아 200년, 300년 룰루랄라 할 것인가에 몰두할 뿐이다.

사실 디지털 시대에 해가 진다는 것은 바닷가 연인들에게나 달콤한 서정일 뿐이다. 미국의 시계는 세계 도처에서 리얼 타임이다. 인터넷에서 해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계는 24시간 내내 현재시각이다. 미국의 수많은 타국 속의 미국 땅인 미군기지들, 떠다니는 섬들인 항공모함들과 물 속을 누비는 핵잠수함, 지구마을 도처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들인 전투기들과 정찰비행기들, 그리고 지구와 동시 자전하거나 더 빨리 회전하는 인공위성들-특히 첩보위성들은 지구촌 구석구석 1미터 크기의 물체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매가더 장군은 일본을 재건시키는 역설적 공로자가 되었고, 코리아를 분단시키고 코리아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주도자였다. 그가 코리아에 진군하여 점령한 용산 미군기지와 6.25 전쟁 이래 늘어난 미군기지와 미군비행장들은 아직 미국의 영토처럼 우리가 어찌 해볼 여지가 없다. 리승만 대통령이 갖다 바치고 매가더가 못이기는 척 받은 땅들 말이다.

여기서 잠깐만 되살펴보자. 목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파주 미군기지들로 이어지는 1번 국도, 철원에서 의정부-서울-충주-김천-거창-진주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는 3번 국도, 충주에서 갈라져 단양-대구-마산으로 이어지는 5번 국도... 이 길들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길들인가? 김포비행장에서부터 김해, 목포, 삼천포(지금의 사천), 예천, 횡성, 춘천, 수원, 오산 등지의 비행장들은 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인가? 그 답은? 미군!

이 땅을 가로 세로, 누비고 엮은 미군의 문어발들, 그 몸통은 용산이다. 그 용산을 평택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반 백년이 넘도록 공짜로 썼으면 됐지 새 땅 내놔라, 이사비용 내놔라 라면서 말이다! (자기들은 그럴 것이다. 너희들 도와줄려고 쓴 것이다라고. 속셈은 우리가 점령, 접수한 땅은 한 치도 그냥 돌려줄 수 없지 라고 주관알 똥기면서)

자기들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재편성하려면 그 부담은 당사자인 자기들이 저야 마땅함에

도 불구하고 얻다대고 선심 쓰는 양 억지를 부리는 건가. 미국 군수자본의 하수인 격인 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미 악의 근원 죠지 부시 주니어 그 이전인 아버지 죠지 부시 그때부터 군사재편 구상을 시작했고 그 아들이 집권하자마자 그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장본인 중 하나이다. 그런 그가 악어가 눈물을 흘리듯, 서울 사람들 어지간히 생각해 주는 듯 툭! 던졌다.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옆구리 쿡! 찌르듯 던진 말이 센트럴파크에 미군기지가 있다면 뉴욕 시민들이 참을 수 있겠는가?였다. 그렇다. 서울시민들도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라.

한데 다시 물어보자. 센트럴파크가 문제면 렛거스로 가면 해결 되는가? 이 질문은 용산이 문제니까 평택으로 가면 되는가?라는 것이다. 그 답은? 안돼! (렛거스는 뉴욕 인근 뉴저지주에 있는 도시. 여성의 날을 만드는 계기가 된 여성대행진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그나마 힘을 내서 싸우고 길을 열다 보니 우스운 일도 다 많다. 새 길 내니까 똥개가 먼저 지나간다고, 용산 미군기지과 맞닿은 땅에 새로 짓는 시티파크 주상복합 아파트가 로또복권보다 더 난리법석이라구? 참, 나, 원!

3월달 국방부앞 월례 평화군축 집회에서 서울 회원이 했던 1분 발언으로 이 글을 맺고 싶다. 나쁜 이웃이 이사간다고 해서 좋아 했더니 이사비용까지 다 내놓으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저 풍풍이나 휴지다발 정도 선물로 사다 달라면 모를까.

◆시 론◆

종속적 대미안보관과 군비증강론에서 못 벗어나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에 대한 평가 -

동국대 교수 이 철 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기본 구상을 담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안보정책 구상을 문서화하여 발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90쪽 분량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이 ①국가안전보장 ②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인식아래, 국가안보목표를 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국민생활의 안전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가안보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기조에 바탕하여 노무현 정부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단기과제인 전략과제와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과제인 기반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과제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주도를, 기반과제로는 ▲전방위 국제협력의 추구 ▲대내적 안보기반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나 평화번영정책이니 하며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워 온 정책목표가 그저 공허한 구호로만 들릴 뿐이다. 냉전의식과 종속적인 대미안보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추상적인 개념과 모호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잘못된 현실인식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내세운 무모한 군비증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위한 전제조건인 군축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군 개혁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한 듯하다. 대신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당한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김대중 정부보다도 후퇴한 느낌이다.

어려운 말 쓸 필요도 없이 쉽게 이야기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전략 내지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

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군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지역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고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동북아에 다자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보고서는 매우 모순적인 발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간에 화해협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아 발전시키면서, 동북아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병행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군사력으로도 모자라 군비증강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고 신뢰구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의 군사전략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배치되며 미국이 극구 반대하고 방해할 것이 분명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은 NSC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 주적 개념의 폐기를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종속적 대미안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가 북한 주적 개념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더구나 북한 주적 개념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는 북한 주적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북한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최대 안보 위협이며,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쟁억제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이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협력적 자주국방과 포괄안보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몇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자주국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이란 다름아니라 지금과 같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종속적인 안보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의 또 다른 위험성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군비증강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주국방을 핑계삼아 올해 국방예산이 탈냉전 이후 최대규모로 증액된 바 있다. 마구잡이식 무기도입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MD무기체제를 갖춘 이지스함 등 MD관련무기들의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전략과 정책의 결말은 너무나 뻔해 보인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MD관련무기들을 구매하여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들에 공고히 편입되어 오히려 미국에 대한 군사적,안보적 종속성이 심화되어 갈 것이다.

물론 자주국방이란 동맹관계의 해체나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자주국방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의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은 군축의 가능성을 없애 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전 김대중 정부가 군축을 중요한 정책목표—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로 삼았던데 비해,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군축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큰 후퇴다. 단지 군비통제론의 입장에서,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기껏 군사직통전화나 놓고 군 인사들간의 교류,접촉이나 하자는 것이다.

한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는포괄안보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군사 부문은 물론 정치,경제,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안보개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은 다양한 안보위협원에 대처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안보개념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포괄안보개념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의 한 부분을 이루는 안보개념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군비경쟁에서 자원고갈,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보가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모든 국가가 협력적 방법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협력안보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은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따서, 다양한 안보위협원에 대처한다는 명분아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포괄안보가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의 이론적 개념이 되는 협력안보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현실상,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한미관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객관적인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대미 종속적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크게 전환하지 않은 한 어떠한 새로운 정책구상도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설득력을 주려면, 먼저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전면 재협상과 이라크 파병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굴욕적인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계평화운동 동향◆

해외 미군기지와 군사 식민주의

미국 평화운동가 조셉 거슨

이 글은 올해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미군기지반대회의에서 미국의 평화운동가 조셉 거슨이 한 연설을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조셉 거슨은 미국 내 평화와 기지 반대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태양은 결코 지지 않는다 - 해외 미군기지에 맞서 등이 있습니다.

이곳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인 제가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미묘한 느낌이 드는군요.

지금 해외 미군기지들은 미국이 원유, 천연가스 같은 중요한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줌으로써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물적인 기초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3세계의 채무를 그 나라에 새 미군기지와 시설의 건설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군기지의 임무, 오늘에 와서는 97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정식화된 모든 분야에서의 압도적 우위(Full Spectrum Dominance)라는 미국 군사전략의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군기지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깨달은 것은 반핵회의 참석 차 일본에 갔던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미국인이나 평화운동가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 100개의 미군기지가 특히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과 다른 일본인들이 매일 생존 위협에 시달린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952년 미군 점령통치를 끝내는 대가로 불평등한 미일군사동맹 체결을 강요당한 결과 국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은 유럽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강요한 것처럼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괌 등에 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로써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 기지는 자주,인권과 주권을 훼손합니다. 군사 기지는 주둔국의 문화, 가치관, 건강, 환경을 침해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군사시설에 대해 모릅니다. 설령 해외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해도 주둔국의 방어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미군기지가 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적어도 40개국에 702개로 추정되는 해외 미군기지의 전략적 본질과 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체 기지체계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세계적인 기반시설로 작용합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이처럼 거대한 요새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해외 미군 기지들의 임무

▶현상을 강화시킨다 : 전쟁억제의 주한미군 기능이나 원유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위한 중동지역 기지 기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적을 포위한다 : 냉전기간에는 소련과 중국을 포위하고 지금은 중국을 포위합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디에고 가르시아,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연방국의 미군기지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핵무장잠수함, 미해군의 다른 군함들을 보조하고 강화시킨다 : 오키나와와 도쿄외곽의 요코스카 기지들을 포함합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맺은 방문군 협정과 출입협약(access agreement)이 포함됩니다.

▶미군을 훈련한다 : 비에케스에서 폭격 훈련과 오키나와에서 계속되는 정글전쟁 훈련을 포함한 여러 훈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사개입을 위한 출동지역이 된다 : 오키나와, 필리핀, 최근 임무가 변경되고 있는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온두라스, 독일의 기지들과 동유럽이나 쿠웨이트의 새기지가 이 임무를 떠고 있으며 이라크의 새 기지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C3I를 용이하게 한다 : 핵전쟁 수행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포함하는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과 정보(intelligence)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본 첩보와 전투를 위한 우주활용을 촉진시킨다. 오키나와, 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중국의 미군 기지들이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주둔국 정부를 통제한다 : 일본,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가 그러하고 최근 이라크가 그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핵무기 기지로 사용한다 : 예를 들면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그렇고 아마 오키나와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 군사 기지라고 부르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예전부터 육상, 바다, 우주의 장악을 기도해 온 미국은 이제는 미사일 방어(MD)를 통해 우주공간의 독점적 무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비전 2020은 지구의 지배를 위해 우주공간을 통제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카우트가 달에 있으나 언젠가는 지구상의 전쟁과 태양계의 식민지화를 위해 달에 미군기지가 건설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

럼즈펠드의 전략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생긴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제국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적인 전략중의 하나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 부시 전 대통령의 작전명, 사막의 폭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것 즉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동원유에 대한 독립적 통로를 얻기까지는 결코 적과 그 동맹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은 또한 냉전와해 초기의 혼란기에 세계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와해 몇 달만에 대부분의 군사동맹, 군사 예산, 군사 기지와 군수품 생산 시설은 그 합법적 명분과 전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폭풍으로 영국과 독일의 미군기지가 부대 집합지와 출동지로 이용되면서 나토도 역외 작전으로 변경했으며, 심지어 아일랜드 더블린의 평온한 새논 공항조차 미군 전투기의 이착륙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 130억 달러(걸프전 때 일본 부담금)와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의 기지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은지-정치문화의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부추겼습니다.

1991년 비에케스 주민들은 폭격훈련으로 고통받았고 디에고 가르시아의 해공군 기지는 미국의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공식,비공식 동맹을 훈련시키고, 이집트와 페르시아 만에서 미군 주둔과 기지의 사용을 재합법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사막의 방패 단계에서 이라크에 핵전쟁위협을 가했는데, 실제 700여 개의 달하는 핵무기를 동원하여 이라크를 포위함으로써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 그룹에서만 큼은 냉전 후에도 핵 무기고의 존재와 핵 약탈 관습 재합법화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관하고, 핵무장 군함이 기항하고, C3I기능을 행하는 군사 기지임은 물론입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가 막대한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냉전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클린턴은 1994년 대북 선제공격으로 제2의 한국전쟁을 야기시킬 뻔했는데, 그 이후 국방성의 나이에게 대 아시아 정책을 구상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의 10만 명의 미군유지와 클린턴-하시모토 협정, 미일특별행동위원회(SACO)를 통해 미일동맹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SACO는 실질적 변화 없이(표면상 미군의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오키나와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나이는 또 클린턴에게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쓰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견제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이 NATO에 편입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또 미국은 세르비아와의 불법적인 코소보 전쟁에서 본드스틸이라는 거대한 기지를 새로 건설했는데, 본드스틸은 워싱턴이 바라는 바 서유럽과 러시아를 포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초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는 중동 전쟁에서 미군의 출동 기지로 이용되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체니가 말한 21세기를 위한 재정비-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를 강조하면서 힘을 얻게 되

었습니다. 9.11 이전,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성명의 발표 전, 일방주의자들인 부시체니리즘 펠드는 대대적인 군사혁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는데 이는 육해공우주의 무기시스템과 해외 미군기지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미국의 전쟁원칙에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지들은 폐쇄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통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재배치 작업은 미국 군사력의 증대—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군기지의 중심을 동북아에서 좀더 남쪽으로 옮기는 다각화를 통한—라는 기초아래 행해질 것입니다.

미군 재배치의 목적은 광대한 중국 견제, 동남아에서 테러 전쟁 수행, 페르시아만의 원유 — 동아시아 경제의 피와 같은 — 이동 바닷길의 완벽한 통제에 있습니다.

광은 다시 미국의 아․태평양 군사력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천연자원의 통제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군기지도 증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제는 방문군 형태로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출입 협약 및 타일랜드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언론이 보도했듯이 미군 관계자들은 은밀히 옛 식민지에 군사기지를 다시 세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으로 미군 기지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재구성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줄 세우기 협박전술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의 독재자는 통치권을 양도하고 펜타곤이 영원한 미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독일이 이라크 침략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독일 미군기지 역할이 제한 당하자 워싱턴은 미군철수카드를 독일을 협박하고 유럽의 군사구조를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탄압 하에 미군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전쟁준비를 은폐하기 위해 9.11 테러의 촉발요인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둔 미군과 기지 대부분을 철수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 기지와 그 기능은 카타르와 쿠웨이트로 옮겨졌습니다. 지부티와 바레인의 요새들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 영향을 끼쳐 미국의 원유 생산지로 역할하도록 하는 계획에 덧붙여 향후 중동에서 미군사력의 요새로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역시 미군의 전 지구적 군사네트워크에 있어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해 봄 부시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야에,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나의 미군기지 집단을 건설 하는것을 교섭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 주둔지로는 알제리, 말리, 기니(석유의 제공자로도 꼽히고 있다), 자이레 등이 포함되며 세네갈과 우간다는 공군을 위한 연료 공급지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은 그들의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도 잊지 않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50년간의 비에케스 기지폐쇄투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군기지들이 안데스 산맥 국가들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지 중에는 에콰도르 만타에 있는 것이 가장 큼니다. 미국은 캐리비안의 군사화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각적이고 전례 없는 전지구적 군사력 구조화는 몇몇 개념적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연성입니다. 체니, 럽스펠드와 그들의 협력자들은 군사행동의 완전한 자유를 원합니다. 만약 독일이나 다른 속국들이 전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미군기지와 시설의 사용 허가를 꺼린다면 펜타곤은 가능한 빨리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워싱턴은 아시아에서 미군 재배치의 가장 큰 주력지인 남한처럼 그 군사 시설들이 탄력적,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정권교체전쟁에 사용되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고, 남한의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멀리는 페르시아만까지 미군의 군사개입을 보조—주일미군기지처럼—할 수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동성입니다. 전진배치 된 미군 및 군수품과 함께, 군사개입과 공격을 위한 출동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 떠오른 기지와 관련된 것으로 그 목표는 상대방이 방어를 준비하기 전에, 이라크 경우처럼 장기인 저항전략을 세우기 전에 선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

현존 혹은 새로운 군사 기지와 시설을 만들면서 전진배치된 미군은 다음과 같은 중층적인 구조를 따라 정비될 것입니다.

- 1) 일본, 오키나와, 괌, 영국, 카타르, 온두라스와 같은 주요 허브 기지.
- 2) 남한, 디에고 가르시아, 쿠웨이트,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작은 중심지 혹은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ong bases).
- 3)리투아니아에서 카자흐스탄에 걸친 나라들과 지부티에서 남미의 안데스 산맥 국가와 같은, 출동기지로 이용될 새로이 떠오르는 전진작전지역.

또한 해양국가 미국은 무기의 전진 배치를 위한 해상기지와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해상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국가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의 유희에 빠지도록 하자는 것이 이러한 미 군사력의 재편의 목적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같은 재조직화는 기지, 군대, 무기, 부대 그 자체처럼 더욱 공포감과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 대

저는 미군 주둔과 군사 기지로 인한 학대와 강탈, 위협,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리핀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고무적인 투쟁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가 우리가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새로운 운동도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세계적으로 기지반대 교육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현재 조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회의 유럽네트워크에서 만난 기지반대 활동가들이 벌써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사람들이 쓴 책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기지반대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다시 벨기에의 핵무기 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남반구 초점이 새로운 기지반대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남반구 초점은 역사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운동을 추진하도록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국제 미군기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미군 기지 및 미군 철수가 미국 평화 운동의 초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출발점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려는 순회 연설회와 합동출판, 1995년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여중생 강간사건 이후 수백만 미국인들이 서명한 반성과 연대의 진술서 등등이 그것입니다.

번역 | 강영혜 도움 | 김삼훈 정리.요약 | 오혜란

◆번역글◆

아메리카의 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피스데포 대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이 글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일본 평화운동가가 대표로 있는 피스데포에서 발간하는 핵무기, 핵실험 모니터 격주간지 200호(2003년 12월 15일 발행)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주일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시민사회 단체가 이를 자주외교와 협력안보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글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여기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해 11월 25일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군사력 태세의 재검토(NPR)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군재배치의 논리는 2001년 4개년 국방 재검토(QDR)에 명시되어 있다. 재배치 자체는 긴 과정이 되겠지만 미국 정부는, 미 의회에서 시작된 2004년의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을 고려하여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시 성명

부시 성명에는 두 개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하나는 이번 미군 해외군사력 태세의 재검토가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군 전환(force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검토가 우방국, 동맹국 및 의회와 밀접한 협의 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군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군사혁신(RMA)을 통해서 커다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물량 사고에서 탈피하여, 능력 베이스의 군대를 지향한다. 또한 군별(육해공해병)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군대에 의한 새로운 전쟁 개념을 개발한다. 그리하여 기민하고 유연한 새로운 군대에 조응하는 해외배치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부시가 성명을 발표한 날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 아니라 능력이다ꡓ라고 강조하였다.

군 전환에 조응하는 신태세의 구축에는 제복조(군관료)의 저항, 기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둘러싼 의회의 저항, 특히 미국의 우방, 동맹국의 저항이 예상된다. 가령 이미 러시아는 서유럽 NATO의 미군기지가 폴란드로 옮기게 되면 러시아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모스크바 타임즈 11월 27일). 부시 정권은 그간의 단독 행동에 대한 반성을 다소 하고 있다. 해외군사력의 신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이해세력과 협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시 성명이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미국 내를 향해서는 미 의회와의 타협과 견제라는 노림이 있다.

미국 의회의 동향을 보기 전에, 동북아시아의 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해 둔다.

동북아시아는 미군배치 과잉

해외배치태세 재검토 필요성은, 부시 정권이 2001년 9월 말에 제출한 4개년 국방 검토(QDR)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 제 4장 미군의 세계태세의 재편이 이번 재검토의 기본 노선을 보여준다.

이 문건은 미군기지의 해외분포를 능력 베이스의 개념을 기초로 사고하고 있다. 미국에게 가해질 이후의 위협은, 누가 위협할 것인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어느 국가, 국가연합, 비정부 주체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 및 동맹국, 우방의 사활적 이익을 위협할 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이...사용하는 능력을 예측할 수는 있다.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13쪽)

이러한 능력 위주의 사고 속에서도 미군의 해외 주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세계적인 미군의 해외 주둔 태세는 이미 낡은 것임을 QDR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이며, 거기에서는 주둔 과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 주둔은 미국의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예상되는 위협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서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현재의 해외주둔 태세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25쪽)

서유럽과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기지와 주둔지를 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계의 중요지역에 대한 미군의 유연성을 늘리도록 기지 시스템을 개발한다.(26쪽)

기지의 중요도를 조절한다

동북아시아의 미군기지가 과잉이라고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즉 주요 기지에는 신기지에로의 중계 역할을 부여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허브(hub)의 역할을 추가한다는 인식이 서술되어 있다.

미국은 서유럽 및 동북아시아의 중요기지를 유지한다. 그 기지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군사력을 투입, 전개하기 위한 허브라는 추가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7페이지)

여기서 허브 기지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2003년 6월 9일)가 미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쓴 해외 기지의 계층 구조를 인용한다. 그에 의하면 해외 기지는, 허브 (Hubs), 전진작전기지 (Forward Operating Bases), 전진작전지점 (Forward Operating Locations)의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추정하면, 주요 기지는 허브로서 병참, 병력 공급의 거점 기지이고, 기지가 아닌 접근근을 새로이 요구받고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 북서 오스트리아 등은 전진작전기지이며, 그보다 더욱 분쟁지에 가까운 아프간 주변의 중앙아시아, 이라크 주변 및 이라크의 작전기지는 전진작전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군은 요코스카를 해군의 허브로서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키나와를 허브로 위치 지을지 전진작전기지로 위치 지을지는 당연히 일본 정부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개의 흐름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덧붙여, 미 해외기지의 재배치에 관계된 두 개의 움직임이 더 진행되고 있다.

첫째 행정부의 주도적 움직임

둘째 미군기지 폐쇄,재편 2005년 라운드

셋째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먼저, 기지 폐쇄,재편 2005년 라운드(BRAC05)를 보겠다. BRAC란 Base Realignment & Closure의 머릿글자이다. 2002 회계연도 국방인가법은 냉전 종결에 따르는 다섯 번째(5라운드) 미군기지 폐쇄․재편을 2005회계연도(04년 10월 1일부터 시작)에 실행할 것을 입법화하였다. 국방부는 기지의 합리화를 통해 군사 전환에 충당할 예산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의회는 현지 이해에 따라 강한 저항을 표해 왔다. 04 회계연도 국방인가법의 심의 과정에서, 하원이 BRAC05에서 알맹이를 빼버리자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 결과 의회의 저항은 성공하지 못하고, BRAC05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BRAC05는 미국 내의 군사기지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재편이다. 하지만, 의회의 압력이 있으므로 해외기지를 방치한 채 국내기지만을 정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장관은 폐쇄,재편의 선정 기준을 제출할 때, 세계 군사시설의 완전한 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선정 시에는 해외 기지의 제약 및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03년 12월 31일(이미 지났음: 번역자 주)까지 국방장관은 폐쇄,재편의 기준 안을 의회 등에 제출한다. 그리고 최종 기준을 04년 2월 16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또 2005년도 예산 설명 문서 안에 세계의 군사 시설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시점은 04년 1 ~ 2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회지가 나오는 4월 중순에는 주한미군의 기지 현상에 관한 최종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 번역자 주)

미 상원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미 하원이 BRAC05를 무산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 상원은 조금 더 매끄럽게 행정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제안했다. 상원의 2004회계연도 국방인가법안(S1050)은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제 3자에 의한 해외기지 평가의 길을 열었다.

이 시도는 우여곡절 끝에 2004회계연도 미국군사건설세출법(HR2658, 공법 108-132)의 제 128절을 만들었다. 이것은 주일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기지의 장래에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ꡐ미국 해외군사시설의 구성,재검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b)의무 항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해외배치 병력수의 평가, 해외군사시설의 현상 조사, 주둔국 지원의 실태 조사, 폐쇄․재편의 가능성 및 확충 가능성 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청회의 개최와 조사권한이 부

여된다.

즉 일본 미군기지의 실태를 미국 정책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창구가 열린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자주외교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 일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정당, 시민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군사력에 의한 안보가 아닌 협력 안보로의 이행이라는 정당한 주장을 펴므로써, 기지 천국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법률 상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안 성립(11월 22일) 후 45일 이내인 04년 1월 13일까지 위원이 임명된다. 위원은 2월 12일까지 제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늦어도 04년 12월 31일까지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시 대통령 성명에서 출발하고 림스펠드가 이끌어가는 해외 군사태세 재검토는, 이 의회의 해외군사시설 재검토 위원회와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번역 | 유승희

◆용산투쟁 제안과 결의◆

◆서울평통사

서영석 공동대표

지나가시던 할아버지 한분이 한국은 봉이지.. 힘이 없어서 그래... 진정한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아서 그래.. 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때도 손자놈들을 데리고 나와서 집회에 참가했어.. 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바로 이런 마음이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소박하지만 강한 마음이다.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회를 거듭해 가면서 대중들에게 이전협상의 굴욕성을 널리 알려낸다면, 대중과 함께 싸워나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기성 회원

국방부 앞이어서 그런지 미군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군요.

저녁식들을 우리가 여태껏 먹여살려 왔으니까 이제 나갈때도 됐는데 나갈 생각은 안하고 되려 20여조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내라니 정말 열이 받더군요.

아무튼 1인시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영미 회원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어두워져서 1인 시위를 조금 일찍 끝내긴 했지만 지나가는 차안의 한 아주머니께서 수고한다는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비가오고 추위도 힘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보도를 걸어가시던 양복입은 한 아저씨도 수고한다며 인사말을 건네주셔서 으쓱해졌죠.

옆에서 우산을 들어주던 남자친구와 함께해서 그런지 시간도 빨리가고 비가와도 정말 좋았습니다.

강유겸 회원

봄이 오는 4월인데 저녁 바람이 쌀쌀하다. 땀 속까지 바람이 승승 들어오는 외교통상부 앞. 언제나 봄이 오려나. 빼앗긴 들에는 봄도 오지 않는 걸까.

주한미군이 고운 우리 겨레의 땅을 짓밟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금을 뜯어먹으며 군대를 휘어잡고 군림한지 5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땡땡거리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듯 바람이 더 세차게 불고 봄이 더디게 오는구나.

그래도, 퇴근길 지나는 사람들이 눈길을 줄 때마다,
차창을 열고 열심히 선전판을 읽는 택시기사 아저씨를 볼 때
젊은 경찰 친구가 미국이 이사가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대요?
미국 나쁜 놈들이네 아저씨 추운데 좀 왔다갔다 하세요 하고 말할 때

나는 뜨근한 봄기운을 느껴본다.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한 봄을 막고 있는 주한미군의 정체는 또렷하게 드러나리라.
우리 국민이 한 입으로 외치고 어깨를 걸면 상전노릇하던 주한미군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리라.

이 땅의 주인답게, 따뜻한 봄을 불어올 그 날을 꿈꾸어 본다.

◆부천평통사

시사분회 주춧돌

저희 분회원들은 가능한 시간에 모여 지하철 안에서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탄핵정국, 총선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 분회가 솔선하여 용산투쟁을 만들어 보자고 결의하였습니다.

분회토론에서는 평택을 한번 다녀오자는 의견, 퍼포먼스를 하자는 의견,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분회는 먼저 시작하는 의미에서 전철선전전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희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부천평통사의 모범분회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실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현지환

2-30대 직장인들 가운데 남성은 세금, 여성은 술값에 들이는 돈이 가장 아깝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박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월급날 받는 돈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얼마 안되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런데 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앞에서 열린 평화군축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하러 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국방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러나 이전비용의 한국부담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관심을 보여주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한달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민의 궁핍한 생활을 모르는게 분명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있는 전철선전전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려 합니다. 또한 농활에도 참석하여 평택주민들의 투쟁의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천평통사

미군기지 분회 지피지기

미군기지 분회원 대다수는 인천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공간과 연계가 있는 대학교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선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분회 부식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대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인천대학교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대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우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회원들은 일상적으로 회사 동료들을 비롯한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산미군기지 문제와 평통사에 대해 알려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군기지 분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들을 만나가면서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앞장서서 현장과 생활공간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반대 투쟁을 더욱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정동석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인식을 극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경우 분회 교육, ON-LINE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서명조직, 인천지역의 주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주 1회 캠페인, 메일링 리스트 작업, 전철 선전전 등을 통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측 부담 반대 투쟁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역 1인 시위, 인천지역 자전거 순례, 스티커,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상과 음악이 있는 문화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매항리 미군국제 폭격장 반대 투쟁, 2002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의 투쟁 이후 다시금 미국의 오만함에 맞선 민족 자주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투쟁으로서 반드시 성과있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습니다.

◆총회를 다녀와서◆

총회의 내용이 담긴 실천

부천평통사 현장분회 조 민 우

여러 프로그램 중에 지켜왔던 것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총회를 마쳤을 땐 1박 2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총회가 지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제가 가졌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전문화되는 조직에 맞게 전문화된 발표(영상 발표)를 첨 보게 됐다는 것이고, 둘은 대중화와 원칙의 결합이 이런 것이라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은 장소가 대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을 보면서 부천이란 편한함에 안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 중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은 회원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총회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총회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회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천 평통사회원 모두가 부천의 송내역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1박 2일 빠신 총회의 내용이 담긴 실천인 것 같습니다.

평통사 2004년도 운영위원 수련회와 제10차 운영위원 총회 보고

지난 2월 29일(일) 오후 5시,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2004년도 평통사 운영위원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부천, 인천,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평통사 등 각 지역 평통사에서 속속 도착한 80여명의 운영위원과 임원, 실무자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수련회 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수련회 본 일정은 평통사 활동 영상 상영, 박기학 정책실장의 정세보고와 유영재 사무처장 직무대행의 2004년도 평통사 역점사업 해설, 그리고 모범적인 지역 평통사 활동을 소개하는 잘하는 지역에서 배우고 신생지역을 도와주자 시간, 용산투쟁을 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조별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보고 및 발표내용은 모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영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각 지역 평통사 운영위원들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편제된 조는 한 조에 8-9명씩, 모두 8조로 이루어졌으며 조별토론에서는 각자 소속한 평통사에 대한 소개와 용산투쟁방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오후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조별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함께 모여 각 조별로 자리를 잡고 다른 조의 토론내용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평통사 유한경 사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조별토론 발표에서는 각 조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투쟁방안이 소개되었으며 서로 더 잘 발표하려는 순수하고 적극적인 열의가 넘쳐났습니다.

조별토론으로 수련회 본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천평통사 이보영 회원의 사회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풀이는 TV 드라마 대장금 주제를 개사한 노래와 몸짓 배우기, 2004년도 주요사건 발표하기, 조별 대항에서 진 조원들이 이긴 조원들을 업어주기 등 짧으면서도 결합력을 높이는 순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화), 아침식사를 마친 후 10기 9차 중앙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운영위원들은 운동장에서 축구와 배구 등을 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10차 운영위원총회가 재적위원 71명 중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는 총회운영위원 외에도 임원, 중앙 실무자들과 지역 운영위원, 실무자 등 모두 7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총회운영위원들은 총준위가 준비하고 중앙운영위원들이 검토, 의결한 총회 안건들을 모두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총회에서는 11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부로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와 중앙 공동대표로 신임 김홍수 대표를 비롯하여 변연식, 임종철, 진관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회원탐방◆

양심군인 조주형대령

▶ F-X사업의 외압을 폭로하게 됐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1985년 미국 유학당시 마지막 쿼터(3개월 단위의 교육 편제)에는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전공과목 1개 외에 머리를 식히는 형태의 교양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토의형태로 진행이 되었지요. 과제는 두 번 있었는데 에세이 형태로 A4 용지 2매 정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제목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하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 이익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과 한국 역시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런 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와 곧 바로 전력증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미국과 계속 부딪히면서 미국인들의 잘못된 요구와 행위(고비용, 위협, 회유 등)에 대항했고 결국 우리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실제로 F-X사업 직전에 두 가지 사업에서 과감하게 미국 장비 대신에 다른 나라 장비를 사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성공하기도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선배들, 상관들로부터 압력도 있었지만 소신껏 했다고 자신합니다. 진급에 연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결국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과 나라 이익 및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외고집이라고 할까요.

▶ 지난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죄확정을 받을 경우 연금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상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군요. 아시다시피 유죄판결이 되면 현 계급으로 제대하게 됩니다. 연금 대상은 안되고, 퇴직금이 절반이 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재직 중에 적립한 금액은 받고, 그 금액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거두어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래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지만 지나간 것에 연연하기 싫군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지요.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봉사활동이나 해야겠다고 깊이 생각했었지요. 물론 제대로 봉사하려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무얼 할까 고민하지 말고 교회든 사회복지시설이든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 기자들과 대담하면서 군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손해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얻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 내부에만 국한된 문제들은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내가 벌여놓은 사업이 잘 되어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필요한 곳에 쓰고 싶고, 지난 주에도 평화운동가들과 워크숍이 있었는데 협력하면서 서로 가진 것을 공유하면 이 땅에 조금 더 평화정착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하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도와야지요. 그리고 최근에 여럿이 고민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고, 서로 공경하며, 갈등과 분쟁을 없애자. 그러자면 반생명, 반평화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결심을 해봅니다.

▶ 대전충남평통사의 공동대표로서 대전충남평통사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자면 자주 만나야겠지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집단에서 우스개 소리로 너희 모임 안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느냐? 라고 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매일 말다툼합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인데 건설적인 토의와 논쟁은 절대 필요하지요. 논쟁을 심하게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경하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충남평통사에서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이 가장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도 평화를 위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끈다거나 발전시킨다는 말은 저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심부름하면서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뜻을 모으도록 도와주렵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통사에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많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거든요. 같이 해주시는 모든 회원들처럼 더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뜻을 같이 하면 이 땅에 평화가 더 빨리 정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을 조금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모든 회원들이 매번 모이기가 힘들면 두 번에 한 번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정리 | 유한경

◆분회탐방◆

서울 평통사 여성 분회를 찾아

분회장 남미영 회원 인터뷰

▶ 여성분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평통사의 여성분회인 노뚝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을 기원하며 모인 기혼여성들의 모임입니다.

1~3명의 자녀들을 키우며,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20~40대의 아줌마 10명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라, 직장생활하라 바쁘게 살아가는 날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자주적이지 못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를 바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 모임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격주로 토요일 저녁 5시부터 독산동에 있는 새터교회를 빌려 모임을 합니다.

▶ 모임 내용은?

모임에서는 평통사의 회지<평화누리 통일누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과 생활나눔, 다른분회나 지역의 활동을 공유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노뚝들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폭력과 분쟁, 미움의 마음을 씻어내고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고자 작년 4월과 6월에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꾸어주는 행사를 하였으며 올 4월 25일에 세 번째 무기장난감 바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국방부앞 집회에 월차휴가를 내고 돌아가면서 1명 이상씩은 꼭 참석한다는 결의를 모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분회원 인터뷰

▶ 분회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때는 언제입니까?

박정자회원 : 힘들고 지치도록 일을 해도 모임에 참석만 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에 안주하고 싶어도 나라의 자주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장남희회원 :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 분회에 오면 힘이 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서 서로 의지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큰 부분에선 우리가 모여서 애 기르고 바쁜과정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박희정회원 : 모임을 하게 되면 사회전반에 대해 알 수 있고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좋습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습니다.

◆독자와함께◆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읽고

평통사 중앙운영위원 정 상 현

19세기 후반을 살다 간 영국의 작가 조지 기싱은 메워지기를 기다리는 하얀 원고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좋은 글을 써서 성취를 이루겠다는 작가적 욕망보다는 써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의 곤궁이 평생 그를 괴롭힌 것이다. 여러 차례 본 회지를 또 한 번 뒤적거리면서, 지난 회지까지 펼쳐 놓고서, 이제 한 시간 넘게 하얀 모니터 위에서 깜박 거리는 세로줄의 커서를 바라보면서 나는 글쓰기를 업으로 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긴다.

다섯 장짜리 원고를 쓰면서 웬 글쓰기의 고통이냐고 책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오로지 우리 회지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만들어 내는 분들에 대한 내 찬사를 바치기 위함이니 말이다.

나는 기껏 다섯 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수백 장의 백지를 가지고 있다. 월 1회 발간의 회지를 꾸준히 채울만큼 원고를 써줄 필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바쁘신 분들일게 분명하다. 그래서 원고 독촉도 꽤나 해야 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알찬 회지를 만들어 내시는 평화누리 통일누리 편집진의 노력과 고통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번 2,3월호에서도 그 괴로움을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첫째, 너무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쫓으려 하다 보니 호흡도 짧고 원고의뢰도 어렵지 않나 싶다. 평화, 통일 또는 미국 등 큰 주제를 가지고 일년 이상 길게 쓰는 그런 칼럼이 두어 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 쪽수나 발간 횟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편집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감을 유지하였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와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고, 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평화와 통일을 전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누리 통일누리 만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만세!

◆회원글◆

평통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미군문제팀장 김 중 일

요즈음 대통령 탄핵정국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시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와 이라크 파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평통사는 작년 6월 전국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평화군축과 자주통일을 기치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대중화, 전문화, 전국화를 외치며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정한 성과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과 지부별로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과정을 평가하고 올해 새로운 계획과 결의들을 내왔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제 활동 경험에 비추어 평통사 회원님들께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올해 역점 실천과제를 각 조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의 평통사 활동과정들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직의 3요소는 방침과 지도집행력, 대중적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실천을 결의한 동지들이 지도집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간부와 회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실천력은 조직역량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실천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역량이 취약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상대의 처지와 조건,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평통사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직역량이 배가될 때 평통사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정세 개입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流水河海(유수하해), 물은 고이면 썩고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야 바다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활동함으로써 전문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이루는 이치대로 조직확대를 실현함으로써 대중화, 전국화를 속히 이루도록 합니다.

평통사 회원님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2004. 3. 15. 서울구치소에서, 김종일 드림

분단의 상처, 실미도

서울 평통사 운영위원 황 윤 미

1968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버스를 빼앗아 서울까지 들이닥쳤다가 결국은 자폭을 하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들이 북에서 내려온 무장공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이 군인들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김일성 주석을 살해하는 임무를 위해 남에서 비밀스럽게 만든 특수부대라는 것을 밝혀왔다.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수많은 상처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실미도다.

극중, 설경구의 아버지가 월북을 했고, 남북 대립이 살벌했던 시대에 그런 아버지를 둔 죄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설경구가 결국은 조직폭력배가 되어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었다는 설정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니까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자폭하기 직전, 버스 곳곳에 자기 이름을 적는 장면은 정권이 자신들의 필요로 만든 비밀부대를 무장공비로 만들어버리는 추악함에 대해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영화가 실제 실미도 부대원들의 모습, 훈련과정, 사건의 전모를 얼마나 가깝게 재현해냈는지는 알 수 없다. 군대를 가면 대부분 실제 하는 훈련들이지 영화에서 특별히 더 가혹한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도 들었다. 어쨌든 나는 실미도를 재미있게 봤고 몇몇 장면에서는 훌쩍이기도 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가져왔는지, 세삼 그들의 고통과 분노가 느껴졌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물론 여기에는 출연진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큰 몫을 했다. 두려움, 오기, 광기, 우정과 분노, 허탈감... 단순하고 직접적인 감정을 단숨에 터뜨리는 연기는 꽤 볼만했다. 훌륭한 영화는 아니어도 그러저럭 괜찮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한다.

이 영화를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 반지의 제왕을 누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고, 우리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1천만 명 관객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나면서 한국 영화계는 잔칫집 분위기인 것 같다. 극장에 관객이 많은 것과 작품성은 별개라는 평은 옳지만 주눅들었던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를 상대할만 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다. 사실 국민들이 미국식 우월주의에 물든 치졸한 미제 영화나 작품성이 좋다는 이름아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 영화를 보기보다 우리 정서에 맞는 한국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대체로 흡족하게 본 실미도의 뒤끝을 씹쓸하게 만든 일은 영화에 나오는 적기가란 노래 때문에 강우석 감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영화의 초점은 실미도 사건에서 밝혀야 할 진실과 의미에 못 미치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나는 감동과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영화가 밝혀야 할 진실과 의미가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건강◆

건강한 삶

평통사 중앙운영위원, 의사 임 승 계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같은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한다. 가끔은 기쁜 일이 삶의 활력을 주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다보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은 식욕을 저하시켜 신체의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준다.

질병이 없이 건강을 지키며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음식에 온 정성을 쓰며, 각종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검진을 받는다. 몸의 자생력을 키워 건강하게 살려면 가능한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알맞은 스트레칭과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맛 좋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궁합을 맞춰가면서 식성을 바꾸어간다. 그러나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의 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의 메뉴를 보면 맛과 영양가를 떠나서 생존을 위한 먹이 감으로도 먹기에 겁이 날 지경이다. 마구 뿌려대는 농약으로 기른 쌀은 차치하더라도, 상추나 배추 등에도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밥상에 쉽게 오르는 김도 처리과정에서 일부는 염산을 사용한다고 한다.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고 키운 돼지나 닭 심지어 물고기를 먹게 된다. 이외에도 가짜 양념, 과도한 조미료 사용, 식품 첨가제, 용기 불량 등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가리다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먹어야 한다.

우선 소식하여 먹는 양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오염도를 줄일 수 있고 비만 같은 신체의 불균형을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왕에 먹을 음식이면 가급적 오염이 덜된 것을 선택하여 깨끗이 씻고 충분히 요리를 하여 먹어야 한다. 가령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 같은 것도 3번 씻을 것을 5번 씻으면 남아 있는 농약 잔유량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다이옥신 같은 해로운 화학 물질도 식물 내부에는 흡수되지 않고 잎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 번 씻어서 먹으면 거의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한다. 먹는 장소도 외식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 소위 맛있고 음식 잘한다는 식당은 대개는 핵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고 기름, 고춧가루, 마늘 등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짜고 매우면 맛이 있으나 위장이 상하고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비록 맛이 덜하더라도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몸에 이롭다.

다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뻥힘)과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체력이 증진되고,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삶에 긍정적이고

우울증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날쌔고 강한 호랑이도 동물원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용맹스럽고 위엄있는 호랑이가 아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신히 서고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돼지는 살만 찌고 몸의 균형 감각을 잃는다. 사람도 원래는 산이나 들에서 사냥하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러나 산업이 바뀌면서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힘을 쓰는 자연스런 움직임에 대한 본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한때 우리는 모든 시간을 움직이며 보냈지만 지금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채로 보내고 있다. 우리 안에 갇힌 동물처럼 살만 찌고 체력이 저하되어 병에 대한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게 된다. 스트레칭은 앉아서 생활하는 삶과 활동적인 삶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또한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해주고, 큰 부담 없이 매일매일 생기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음식과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강의 확립은 우리의 행복과 사회의 성숙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 모두가 건강하여 이웃에 도움을 주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미술◆

설치작가 불탕스키

미술전공 프랑스유학 최 영 주

빠리대학, 미학과와 박사과정 수업 중 매주 수요일 소르본 강당에서 열리는 <예술가와 예술 학자와의 만남과 논쟁>에 불탕스키는 2002년 4월에 초대되어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설치작가 크리스티앙 불탕스키의 입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직접 듣게 된다는 것에 약간 설레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작가 불탕스키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파리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작업에 몰두하였고 후기에는 죽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식적 가치가 되살아난 작업과 연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인종학살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작가는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던 유대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비참히 학살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드러내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죽음으로 인화시켜 작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유도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꼭 지나쳐야 할 삶과 죽음의 통로라고 한다. 인간들이 겪어야 할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시간, 기억, 경험, 죽음 등을 작가는 낡은 사진이나 흰 옷가지, 과자 상자, 양철통 등 일상적인 오브제를 사용했고 또 자연광선을 차단하고 부분조명만 이용해 극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이들의 죽음을 체험할 뿐이다. 또한 죽음은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이다. 즉 우리는 <생사관>을 일체화하여 지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작가 불탕스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불탕스키의 작품 앞에 선 관객들은 <생사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기도 한다. 여기서 죽음을 사실로 지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의 뜻을 반성 또는 의미를 되물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날 강당에서 작가 불탕스키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개인>보단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라는 단어 속엔 물론 내가 존재한다. 개인이 간직한 기억들 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기억들을 작가는 조그마한 잔재들을 모아 설치함으로써 감정이 내포되어있는 예술 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개인>보단 <우리>라는 불탕스키의 말을 훈데르트바서의 문장을 인용해 마무리하고 싶다. ꡒ나 혼자 꿈을 꾸면, 그건 한갓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ꡓ

자료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발췌)

1. 청구인 : 홍근수, 문규현, 진관, 임종철, 변연식 외 450명

2. 청구 이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의 굴욕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전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협상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불법과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협상 대표단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슬러 미국의 일방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은 불법적인 90년 합의에 의거하여 진행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만이 일방 통행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내용이 담긴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이 심각하게 침해됨은 물론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더욱 고착, 심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4월 20일로 예정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전에 국민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의 침해를 미리 막을 수 있으며 감사원의 예방감사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감사청구권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침해를 막고 협상 대표단 및 관련 책임자들의 전횡과 독단을 척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3. 감사 청구 사항

(1) NSC 관계자가 청와대 특별감사 결과 등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과정을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의혹에 대하여

(2)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 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정부 일각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묵살되고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인사 조치된 경위에 대하여

(3)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90년 합의에 의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4)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안이 비용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고,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5) 미국의 부당한 외압 의혹에 대하여

(6) 정부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전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7) 정부가 협상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한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 (8)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편법적으로 적당히 때우려는 의혹에 대하여
- (9)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의 부당성에 대해서
- (10)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 (11) 평택 대체부지 제공의 적절성에 대하여

청구서의 상세 내용 전문과 첨부자료 전문은 평통사 홈페이지(spark946.org) 보도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04년 한반도 정세 전망

이 자료는 평통사 총회 수련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1. 북미관계 전망

1) 부시는 북한 봉쇄정책의 기초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만적인 대화전술 구사

(1) 대선 전까지 부시는 직접적인 무력행사보다는 대북한 봉쇄정책 구사

① 군사적 조치로서는 대북한 핵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적 준비(신작전계획 5026, 주한미군 재배치, PAC-3 등 주한미군 전력증강, 한반도 주변 미군사력 증강, 북 동요계획인 작전계획 5030 가동)를 계속 강행하고 있음.

② 유엔 결의를 얻지 않은 단계에서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준군사적, 경제적 제재 조치로서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가동시킴. 일본의 대북 제재법안인 외환,외국무역법 개정안 통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 준비. WMD선박 나포 러에 협조 요청 등.

③ 마약, 화학무기 생체실험, 북한 자유법안 따위와 같은 IAI(북한 불법행위 방지구상)를 통한 북한 고립 및 침략명분 축적

(2)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음

①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부시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전쟁모험을 하기 어려움.

② 북한의 핵 억지력 공개로 대북한 정책의 실패 여론에 직면함. 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의 공격에 노출.

③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조작 비판에 직면함. 부시의 도덕성, 이라크 침략 명분에 대한 미국민들의 회의가 증폭되면서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궁지에 몰림.

④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중재가 활발하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피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일정한 타협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기초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시간 연장이나 대북한 압박의 장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큼.

(3) 대선 전에 북 핵문제 해결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부시가 재선된다면 새로운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6자 회담 전망

(1) 북은 핵 억지력 공개와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부시로 하여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음

- ① 1월 초 미국 대표단에 플루토늄 금속 200g 및 옥산살 분말 150g 등을 공개.
- ② 이는 군사적으로는 부시의 북한 붕괴정책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의 표시이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시간을 끄는 부시를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전술이기도 함.
- ③ 북은 억지력 공개와 함께 핵 동결 대 보상(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제재 해제, 경유 등 에너지 제공)이라는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음.
- ④ 미국의 농축 우라늄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농축우라늄 전문가회의를 제안함으로써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함.
- ⑤ 북의 적극적인 자세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 일정한 진전을 끌어냄으로써 만약의 경우 부시가 재선될 경우에도 대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2) 미국은 선 핵포기(검증 가능한) 후 안전보장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제안에 응하기도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

- ① 부시는 북한의 핵 동결 제안에 대해서 선 핵포기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검증 가능한 핵 동결 땀 에너지 지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 입장의 변화로 볼 수는 없음.
- ② 부시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계획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칸 박사를 이용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음. 이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명분을 강화하고 6자 회담의 실패를 북한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로서 북한의 고립 압박 전술임.
- ③ 대북한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취해 온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이용해 보려는 속셈을 드러냄.

2. 남북관계 전망

1) 노 정권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민족적 요구와 국민적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는 처지

(1) 노 정권은 남북관계보다는 한미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후퇴가 초래되고 있음(한미정상회담, 핵문제와 경협연계 방침, 케도 경수로건설 1년 중단 등).

(2) 특히 북한을 겨냥한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음.

(3)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이외 사업확장을 꺼리고 있고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임.

(4) 13차 장관급 회담의 전향적 합의는 노 정권 자신의 주동적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민족공조에 대한 북한의 강한 요구와 충선을 앞두고 민족화해 협력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 남북 경제협력을 유인책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5)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발전시키겠다는 대선 공약 위반은 노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남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퇴행적 결과도 초래함.

2) 북한은 노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인 건인 노력 경주

(1) 북은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지난 1년 간 협력다운 협력은 단 한 건도 없었다구함.

(2) 1월 19일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에서 민족공조, 반미,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6.15 등 민족공동의 기념일에 평양, 서울, 금강산에서 전민족적 회합을 갖자고 제안함. 이는 남쪽 당국이 민족공조에 소극적인 조건에서 민족대단결로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숙원을 앞당겨나가자는 호소임.

3. 한미관계 전망

1)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대북 선제공격과 대 중국 포위를 위한 지역동맹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음

(1) 미 신군사전력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 확대와 신속 기동군화,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아울러 이 같은 신군사전략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과 전력증강도 요구하고 있음.

(2) 신군사전략의 실현을 위한 제반 조치들

- ① 용산 및 미 2사단의 재배치와 평택 미군기지의 동북아 사령부로의 격상
- ② 미 2사단의 신속기동군화
- ③ 한미연합전력 증강
- ④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변경
- ⑤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신작전계획 5026 작성

2)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하위 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포장하고 있음

- (1)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 양해
- (2)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부담,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 (3) 에이웍스 등 MD무기 구입, 2009년까지 국방비의 GDP 대비 3.5% 수준 확대

4. 주체 정세

(1) 민족자주평화운동진영의 구심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안별 연대 형태로 민족자주평화투쟁이 수행되고 있음.

① 당면한 민족자주평화투쟁(가령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은 사안에 따라 한시적 연대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세에서 요구되는 민족자주평화투쟁을 과제나 주체역량 등 전반적으로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는 구심조직은 부재한 상태임.

② 민족자주평화투쟁의 상시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가칭)자주평화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결성되지 못함.

③ 민중연대나 통일연대가 자주투쟁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내용적, 조직적 한계가 있음 (이라크 파병 중심으로 하되 미래 한미동맹에는 거의 대응을 못함).

(2) 구심조직이 부재한 조건에서 미래동맹 대응, 평화군축 등의 투쟁 과제는 선도적인 자주평화단체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

① 미래한미동맹 대응 투쟁은 평통사를 중심으로 평택대책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대중들이 수행해 옴. 이를 통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국민들에게 여론화하고 운동진영에도 인식을 확산했으며 한미 양국의 기도에 일정한 차질을 빚게 하였음.

② 매항리, 두 여중생 투쟁을 선도적,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국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켰듯이 이 투쟁도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

③ 이를 위해서는 내용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전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투쟁국면을 만들어 가야 함. 아울러 친미수구냉전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대중적 반박논리, 연대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한미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고리 특히 대중적인 요구로 될 수 있는 투쟁고리에 집중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하위협정, 일방적 수직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해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제기해 나가야 함. 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투쟁을 고리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의도에 파열구를 내고 국방비 증액 저지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의 충실한 하위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